

■ 보명(普明)의 목우십도(牧牛十圖)와 곽암(廓庵師遠)의 십우도·심우도(十牛圖·尋牛圖)

보명의 계열은 “소를 길들이는 구조”이고, 곽암의 계열은 “소를 찾는 구조”입니다.

보명의 것은 목우도, 곽암의 것은 십우도라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단계 대응표를 제시하며, 보명은 마지막 10번째에만 원상(圓相)을 두드러지게 쓰는 반면, 곽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상 안에 도상을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곽암은 조선 승려가 아니라 송대 선승이며, 곽암본의 서문은 “住鼎州梁山 廓庵和尚十牛圖頌(并)”로 전해집니다. 반면 보명은 전승 서문에서 “普明。未詳何許人”, 곧 어느 고장의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고 적고 있어, 저자 전기 정보는 곽암보다 훨씬 불분명합니다.

또한 보명 계열의 후대 서문은 목우도의 연원을 『유교경』의 “소를 치듯 마음을 단속하라”는 비유, 마조와 석공, 위산의 “목우” 화두에까지 소급시키며, 목우도의 구조를 “始於未牧。終於雙泯”, 곧 미목에서 시작하여 쌍민으로 끝나는 수행도로 규정합니다.

같은 서문은 “외에 심우에서 입전까지도 또한 그림 열 폭이 있다”고 덧붙여, 보명계 목우도와 곽암계 십우도가 서로 대등소이하지만 방향성이 다른 두 계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명의 목우십도는

未牧 → 初調 → 受制 → 廻首 → 馴伏 → 無碍 → 任運 → 相忘 → 獨照 → 雙泯
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미 눈앞에 있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중심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소가 검은빛에서 흰빛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인우(人牛)가 함께 사라집니다. 이 계열은 수행 심리의 내면적 조복, 정화, 공적(空寂) 귀결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곽암의 심우도는

尋牛 → 見跡 → 見牛 → 得牛 → 牧牛 → 騎牛歸家 → 忘牛存人 → 人牛俱忘 → 返本還源 → 入塵垂手 의 흐름입니다.

즉, 잃어버린 본성을 찾는 과정에서 출발해, 마지막에는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 중생 속으로 돌아가는 것(入塵垂手)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곽암본은 단순한 수행 완료가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자비(慈悲, compassion)와 입세(入世, re-entry into the world)를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핵심만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보명 목우도 : 조복(調伏) 중심, 내면 심성의 길들임, 공적 소멸 쪽이 강함

곽암 심우도 : 탐구(尋牛) 중심, 깨달음의 서사, 마지막 입전수수(入廬垂手)까지 확장됨

1. 未牧(미목) ↔ 尋牛(심우) 소 길들이기 전 ↔ 소를 찾음

보명 원문

生獐頭角恣咆哮 犇走溪山路轉遙 一片黑雲橫谷口 誰知步步犯佳苗
생녕두각자포호 분주계산로전요 일편흑운횡곡구 수지보보범가묘

머리에 뿔 달고 방자하게 울부짖어
시냇가 산으로 분주히 돌아다니더라.
한 조각 검은 구름 동구를 가리니
걸음마다 좋은 싹 밟아 대는지 누가 알리.

검은 소는 망심을 의미한다..
선(禪)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무명(無明)을 타파하고,
망심을 벗어나 진심을 찾아가는 수행이다..

이 단계는 인간의 미조복 상태, 즉 무명(無明, ignorance) 속의 마음을 그립니다.

곽암 원문

茫茫撥草去追尋 水闊山遙路更深 力盡神疲無處覓 但聞楓樹晚蟬吟
망망발초거추심 수활산요로경심 역진신평무처먹 단문풍수만선음

아득히 풀을 헤치며 소를 찾으러 가니,
물은 넓고 산은 멀어 길은 더욱 깊다.
힘은 다하고 정신은 지쳤으나 찾을 곳 없고,
다만 단풍나무 아래 저녁 매미 소리만 들린다.

뜻의 차이

보명의 첫 단계는 이미 눈앞에 있는 소가 날뛰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소를 잃어버림”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조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데 있습니다. 반면 광암의 첫 단계는 소를 찾아 헤매는 상태입니다. 즉 본래성(本來性)을 잃은 듯한 존재론적 상실감이 출발점입니다.

2. 初調(초조) ↔ 見跡(견적) 길들이기 시작하다 ↔ 자취를 봄

보명 원문

我有芒繩驀鼻穿 一廻奔競痛加鞭 從來劣性難調制 猶得山童盡力牽
아유망승맥비천 일회분경통가편 종래열성난조제 유득산동진력견

나에게 고삐가 있어 코를 콧 꿰서
한 번 잡아당기고 아프게 채찍질했네.
전부터 버릇이 나빠 조복(調伏)받기 어려웠는데
산동(山童)이 오히려 잘 끌고 다니네.

이제 무명(無明)을 타파하기 위한
첫걸음, 수행이 시작된다.
검은 소(무명)를 다스리기는 그만큼
수행의 힘이 따라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광암 원문

水邊林下跡偏多 芳草離披見也麼 縱是深山更深處 遼天鼻孔怎藏他
수변림하적편다 방초리피견야마 종시심산갱심처 요천비공증장타

물가와 숲 아래 자취가 유난히 많구나.
흩어진 풀밭 사이에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깊은 산 더 깊은 곳이라 해도,
저 넓은 하늘 아래 그 코구멍을 어찌 숨기랴.

뜻의 차이

보명은 이미 고삐와 채찍이 등장합니다. 즉 수행은 처음부터 통제와 규율(戒, discipline)입니다. 반면 광암은 아직 소를 직접 붙잡지 못하고 발자국(跡)만 봄니다. 이것은 경전, 스승의 말, 수행 체험의 흔적처럼 본성의 징후(signs)를 발견한 단계입니다.

3. 受制(수제) ↔ 見牛(견우) 길들어 가다 ↔ 소를 봄

보명 원문

漸調漸伏息犇馳 渡水穿雲步步隨 手把芒繩無少緩 牧童終日自忘疲
점조점복식분치 도수천운보보수 수파망승무소완 목동종일자망피

점점 조복(調伏)을 받으니 설치지 않았고.
물을 건너 구름 헤쳐도 어디든지 따라와
손에 쥘 고삐 조금도 늦추지 않지만
목동은 하루 종일 피곤함 잊었다네.

수행의 결과로 무명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하지만
그 습벽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망심(妄心)을
식히는 일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방일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곽암 원문

黃鶯枝上一聲聲 日暖風和岸柳青 只此更無迴避處 森森頭角畫難成
황앵지상일성성 일난풍화안류청 지차갱무회피처 삼삼두각화난성

누런 피꼬리 가지 위에서 소리소리 울고,
날은 따뜻하고 바람은 화평하며 강가 버들이 푸르다.
바로 여기, 더는 숨을 곳이 없으니,
숲처럼 우뚝한 뿔과 머리는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렵다.

뜻의 차이

보명의 수제는 소가 차츰 복종하여 따라오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곽암의 견우는 아직 소를 붙잡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멀리서 소를 직접 본 단계입니다.

4. 廻首(회수) ↔ 得牛(득우) 변화되어가다 ↔ 소를 얻음

보명 원문

日久功深始轉頭 顛狂心力漸調柔 山童未肯全相許 猶把芒繩且繫留
일구공심시전두 전광심력점조유 산동미금전상허 유파망승차계유

오랫동안 공력(功力)이 깊으니 비로소 머리를 돌이켰네.
미치고 뒤바뀐 마음 점점 다스려 부드럽게 되었네.
산동(山童)은 아직도 미답지가 않은지
잡고 있던 고삐를 또 매어 놓았네.

소를 나무에 묶어 놓고 주시하듯
망심은 항상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수행은 괴로움 뿐,
오고가는 고난을 넘어서 반야의 길을 찾음이라...

곽암 원문

竭盡精神獲得渠 心強力壯卒難除 有時才到高原上 又入煙雲深處居
갈진정신획득거 심강력장졸난제 유시재도고원상 우입연운심처거

정신을 다해 마침내 그를 얻었으나,
마음은 강하고 힘은 세어 끝내 없애기 어렵다.
어떤 때는 겨우 높은 언덕에 이르렀다가도,
다시 안개와 구름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버린다.

뜻의 차이

보명의 회수는 소가 비로소 고개를 돌려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곽암의 득우는 소를 붙잡아 고삐를 낀 단계입니다. 이 곽암의 득우를 선종에서 견성(見性)의 경지에 비유하면서도, 아직 삼독(三毒)에 물든 검은 소라고 합니다.

5. 馴伏(순복) ↔ 牧牛(목우) 길들여 고삐를 놓다 ↔ 소를 먹임, 기름

보명 원문

綠楊陰下古溪邊 放去收來得自然 日暮碧雲芳草地 牧童歸去不須牽
녹양음하고계변 방거수래득자연 일모벽운방초지 목동귀거부수견

버드나무 그늘 아래 옛 시냇가에
놓아먹이고 거두는 것 자연스러워
날 저물어 푸른 구름 방초(芳草) 언덕에

목동은 오고 가도 고삐 끌 일 전혀 없네.

이제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니
두루 무애함은 본래부터 나의 것임을..
오가는 구름으로 향기 품은 바람으로...
향기고운 꽃을 피워 세상을 안으리라..

곽암 원문

鞭索時時不離身 恐伊縱步入埃塵 相將牧得純和也 羈鎖無拘自逐人
편색시시불리신 공이종보입애진 상장목득순화야 기쇄무구자축인

채찍과 고삐를 때때로 몸에서 떼지 않으니,
그가 멋대로 걸어 속세의 먼지 속으로 들어갈까 두렵다.
서로 함께 길러 순하고 화평해지면,
얽매는 굴레가 없어도 절로 사람을 따른다.

뜻의 차이

보명의 순복은 이미 상당히 자연스러운 조화에 이르렀습니다. “농아도 돌아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곽암의 목우는 바로 보임(保任, 깨달은 바를 더 갈고닦음)의 단계입니다. 즉 곽암은 이 단계에서 오후수(悟後修, post-awakening cultivation)를 훨씬 강하게 강조합니다.

6. 無碍(무애) ↔ 騎牛歸家(기우귀가)

걸림이 없다(거리낌이 없다) ↔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옴

보명 원문

露地安眠意自如 不勞鞭策永無拘 山童穩坐青松下 一曲昇平樂有餘
노지안면의자여 불노편책영무구 산동안좌청송하 일곡승평락유여

들판에서 편히 자니 뜻이 자유롭고
채찍질하는데 힘들지 않으니 정말 편하네.
산동(山童)은 푸른 솔 밑에 앉아
한 곡조 부르는 이 즐거움을 뭐라 아라..

一片月生海 幾家人上樓

한 조각의 달이 바다에서 솟구치니
수많은 사람이 그달을 보려고 정각에 오른다.

곽암 원문

騎牛迤邐欲還家 羌笛聲聲送晚霞 一拍一歌無限意 知音何必鼓唇牙
기우이리욕환가 강적성성송만하 일박일가무한의 지음하필고순아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가니,
오랑캐 피리 소리 저녁노을을 배웅한다.
한 번 장단 치고 한 번 노래하니 뜻은 끝이 없고,
참된 소리를 아는 자라면 어찌 입술과 이빨을 북돋우랴.

뜻의 차이

보명의 무애는 채찍 없이도 걸림없는 상태입니다. 곽암의 기우귀가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상태, 곧 본래의 고향으로 환귀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곽암의 소를 완전히 흰 소로 설명하며, 동자와 일체가 되어 피안으로 나아간다고 풀니다.

7. 任運(임운) ↔ 忘牛存人(망우존인)

목동은 잠을 자고 소는 풀을 뜯는다 ↔ 소는 잊고 사람만 남음

보명 원문

柳岸春波夕照中 淡烟芳草綠茸茸 飢飡渴飲隨時過 石上山童睡正濃
유안춘파석조중 담연방초녹용용 기손갈음수시과 석상산동수정농

버들 늘어진 언덕에 봄 물결 석양이 비치고
맑은 연기 속에 방초(芳草)가 우거졌네.
시장하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형편 따라 지내네.
바위 위에 산동(山童) 깊은 잠에 빠졌네..

동자는 바위 위에서 잠을 청하고
소는 소대로 한가로이 노닐고 있었다.
검은 소는 완전히 흰 소가 되었다.
이는 내 안의 망심이 사라진 경지를 묘사함이다...

곽암 원문

騎牛已得到家山 牛也空兮人也閒 紅日三竿猶作夢 鞭繩空頓草堂間
기우이득도가산 우야공혜인야한 홍일삼간유작몽 편승공돈초당간

소를 타고 이미 고향 산에 돌아왔으니,
소는 공하고 사람은 한가롭다.
붉은 해가 장대처럼 높이 떴는데도 오히려 꿈꾸고,
채찍과 고삐는 초당 사이에 헛되이 놓여 있다.

뜻의 차이

보명의 임운은 자연 흐름에 맡겨 사는 상태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생활 속의 도입니다. 곽암의 망우존인은 소는 잊고 사람만 남는 상태입니다. 즉 방편은 버렸지만 수행 주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8. 相忘(상망) ↔ 人牛俱忘(인우구망) 사람과 소 모두를 잊다 ↔ 사람과 소가 함께 잊힘

보명 원문

白牛常在白雲中 人自無心牛亦同 月透白雲雲影白 白雲明月任西東
백우상재백운중 인자무심우역동 월투백운운영백 백운명월임서동

흰 구름 항상 흰 구름 속에 있듯이
사람도 무심이요 소 또한 그렇다네.
달이 흰 구름 뚫으니 구름 그림자가 희고
흰 구름에 밝은 달이 동서로 한가롭네.

망심(妄心)이 사라진
진심(眞心)의 작용을 묘사한 것이다.
무명에 가린 우리 實性이 곧 불성이며,
허깨비같은 빈 몸이 바로 불신이라 함이다..
이로써 우주 삼라만상과 화통의 시작이다..

곽암 원문

鞭索人牛盡屬空 碧天寥闊信難通 紅爐焰上爭容雪 到此方能合祖宗
편색인우진속공 벽천료활신난통 홍로염상쟁용설 도차방능합조종

채찍과 고삐, 사람과 소가 모두 공에 속하니,
푸른 하늘은 드넓어 소식조차 통하기 어렵다.
붉은 화로 불꽃 위에 어찌 눈을 담겠는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사와 합한다.

뜻의 차이

보명의 상망은 사람도 무심, 소도 무심, 곧 서로 잇는 단계입니다. 광암의 인우구망은 말 그대로 사람과 소가 함께 공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주객 분리 이전의 상태, 완전한 깨달음의 지점으로 설명합니다.

9. 獨照(독조) ↔ 返本還源(반본환원) 홀로 비침 ↔ 근원으로 돌아감

보명 원문

牛兒無處牧童閒 一片孤雲碧嶂間 拍手高歌明月下 歸來猶有一重關
우아무처목동한 일편고운벽장간 박수고가명월하 귀래유유일중관

소가 없으니 목동은 한가로워
한 조각 외로운 구름이 푸른 뒀에 걸쳤네.
박수 치며 밝은 달 아래 노래 불러도
집에 돌아가자면 오히려 한 관문 남았다네.

소는 사라지고
동자는 한가로이 여유를 즐긴다.
천지간에 우러러 존귀한 존재를..
걸림 없는 바람의 이 자유로움을...

광암 원문

返本還源已費功 爭如直下若盲聾 庵中不見庵前物 水自茫茫花自紅
반본환원이비공 쟁여직하약맹롱 암중불견암전물 수자망망화자홍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환원하는 데 이미 공을 허비했으니,

차라리 곧장 맹인과 귀머거리 같은 것이 어떠랴.
암자 안에서는 암자 앞의 물건조차 보지 않는데,
물은 스스로 아득히 흐르고 꽃은 스스로 붉다.

뜻의 차이

보명의 독조는 소는 사라지고 밝게 비추는 자각만 남아 있지만, 아직도 “한 겹의 관문”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광암의 반본환원은 산은 산, 물은 물로 보이는 참된 지혜, 곧 주객이 빈 뒤 자연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10. 雙泯(쌍민) ↔ 入塵垂手(입전수수)

둘 다 사라짐(오로지 원상만 남으리..) ↔ 시장에 들어가 손을 드리움

보명 원문

人牛不見杳無蹤 明月光寒萬象空 若問其中端的意 野花芳草自叢叢
인우부견묘무종 명월광한만상공 약문기중단적의 야화방초자총총

사람과 소가 보이지 않고 아득히 자취 없네.
차디찬 밝은 달빛 만상은 텅 비어
만약 그 가운데 團寂단적한 뜻을 묻는다면
들꽃이 방초(芳草) 언덕에 함초롬히 피었다 하리.

모두가 하나로 귀결되다..
모두 사라지니 텅 빈 우주를 만남이라.
사람과 소는 없어지고 원상만 나타남이다..

雙泯쌍민은..

소도 동자도 둘다 사라짐을 의미한다..
즉 존재되어 있음도 없음도 아닌 자유를 의미한다.
바깥경계를 먼저 空寂공적하게 한 후
분별심 즉 망심까지도 사라진 자유로움을 의미함이다,

광암 원문

露胸跣足入塵來 抹土塗灰笑滿腮 不用神仙真祕訣 直教枯木放花開

노홍선죽입전래 말토도회소만시 불용신선진비결 직교고목방화개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저잣거리에 들어오니,
흙을 바르고 재를 칠한 채 뺨 가득 웃음이 넘친다.
신선의 참된 비결 따위는 쓰지 않고도,
곧장 마른나무에서 꽃이 피게 한다.

뜻의 차이

보명의 쌍민은 사람도 소도 사라지고 만상이 공한 자리, 그리고 그 뒤에 “들꽃과 향초가 저절로 무성하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광암의 입전수수는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단계입니다. 큰 포대를 메고 들어가 복덕을 베푼다는 상징이 붙습니다.

☞ 결론

보명의 목우십도는 “마음을 길들이는 심리학”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명에 사로잡힌 통제 불가능한 마음이며, 종결점은 인간과 마음, 수행자와 수행대상이 모두 사라지는 쌍민(雙泯)의 자리입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들꽃과 풀의 저절로 그러함, 곧 자연(自然)과 여여(如如, suchness)입니다.

광암의 심우도는 “본성을 찾아 깨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서사”입니다.

그 출발점은 상실처럼 느껴지는 본래성의 추구이며, 마지막은 장터로 들어가 복덕을 베푼 입전수수(入廛垂手)입니다. 그래서 광암의 도상은 보명보다 더 분명하게 대승 보살행, 곧 깨달음 이후의 자비와 입세(入世)를 강조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명은 “마음을 다스려 마침내 사라지게 하는 길”을 그리고, 광암은 “본성을 찾아 깨달은 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적으로 덧붙이면,

보명의 소는 끝내 꽃밭 속으로 사라집니다.
광암의 소는 사라진 뒤, 사람이 시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는 고요의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개시입니다.